

# 도,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총력

### 새만금신항 2선석 2026년 개장 위해... 배후부지 개발 시급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조기 개발 추진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사업비 3조2,476억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과 부지 451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우선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을 구축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정부 재정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개 선석과 배후부지는 민간투자 유치로 계획되어 있다. 재정이 투입되는 부두 2선석을 2022년 착공하고 진입도로, 호안, 매

립 등 다른 기반시설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026년 새만금의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인 개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항만 운영의 필수 지원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상태로, 개항과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으로 전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 항만 운영이 불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부두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새만금신항 운영이 안되면 새만금 내부개발과 우량기업 유치도 어려워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려는 새만금의 비전도 물거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해 말 적극행정실의 위원회 결정으로 개발중인 항만에도 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새만금신항에 최초 적용되어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해수부, 기재부 등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연도별 적정 소요예산 확보와 배후부지의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정치권과도 연계하여 "신항 배후부지의 재정사업 변경"을 위해 지속 협의·건의할 계획이다.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투자재원 분담기준에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 2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권 인근의 배후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된 평택항이나 포항·영일남항, 목포 등 항의 배후부지는 국비로 계획하였으나, 재정지립도가 열악한 전라북도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간투자자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차질 없는 개항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을 위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을 '체류형 관광 1번지'로

### 기업고객 유치 위한 원격근무 관광상품 개발 박차 지역소멸 위기 극복·경제 활성화 '기대'

전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일(work)과 쉼(vacation) 있는 기업문화와 세계적인 관광 흐름에 따라 휴가지 원격근무 환경을 위한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지역상생형 관광벤처기업을 통해 한옥 숙박과 주변 카페, 전통체험을 연계한 휴가지 원격근무 상품과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터(platform)를 개발했다.

또한, 지난달 30일에 개소한 전라북도관광기업센터에도 공유사무실(약 60평 규모)을 마련해 관광객들이 갑작스레 발생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휴가지의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경기전 인근 여행자 라운지(3월 개소 예정)와 한옥마을 입구 글로벌 웰컴센터(8월 개소 예정)에도 휴가지 원격근무 환경을 마련해 휴가지 원격 근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는 인천, 부산 등 선진지 답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북의 자원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전북형 휴가지 원격근무 상품개발'에 힘써 왔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형 상품을 기점으로 올해에는 공유사무실 20개, 숙박시설 50개, 카페 100개 확보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고객 유치 1,000명 유치를 위한 휴가지 원격근무 관광상품을 지속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형 외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형(무주 등),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양휴양형(군산 등)의 상품도 지속 개발하며, 부안 줄포갯벌생태관, 순창 월랜드, 장수 방화동자연휴양림,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등 청년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케이션 4개 거점지원시설도 연계해 전북을 체류형 관광 1번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비록 유동 인구 증가에 제한적일 수 있으나, 휴가지 원격근무 관광상품화는 장기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년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의향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전북도, 탄소 특화단지 기업 유치 본격 추진

###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위한 입주의향 설명회 개최... 입주의향 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전북도는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년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의향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협력기업 20개 사와 특화단지 내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특화단지 입구에 관심이 있는 26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워크숍 참여 기업 중 43%는 타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 탄소산업의 성장 가능성 만큼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는 탄소소재를 활용하는 중간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모든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을 집적화하고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으로 국산 탄소 소재·부품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전라북도는 설명회를 통해 탄소소재 소부장특화단지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위한 기반시설과 협력기업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유했다.

이어서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4대 핵심 연구개발 사업(경량 자동차 부품성형기술 개발, 초경량 탄소복합재 휠 개발, 수소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PAV용 소재·부품개발) 추진상황을 공유, 특화단지 성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앵커기업인 효성첨단소재는 효성제품군 소개, 공장증설 현황 및 추가증설계획까지 발표하며 탄소 소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특화단지 입주 기업 간 수요-공급 협력 모델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전북도는 지난 1월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 대상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해 특허출원, 시제품제작, 신뢰성인증 사업을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택립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구축을 통해 탄소산업 육성 기반을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며,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특화단지 내 협력기업과 입주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공유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입주와 관련한 투자설명회를 갖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주신 탄소 소부장 협력기업에 감사드립니다"며, "전주시는 워크숍을 통해 우수 중견 기업과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 유망 기업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도, 청년활력수당 지급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전북도가 '전북 청년 합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2단으로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도내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고 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는 국내의 경기침체 및 고용감소에 따른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민선 8기 공약으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시험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사회진입 활동에 필요한 경비(교통비, 식비 등)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전북도는 취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직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하며, 취·창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1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39세의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누리집(<http://jyathzewel.com>) 또는 전북 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http://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도,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 지속 추진

### 전북 유일 생존 애국지사 '이석규 선생' 위문

전북도는 3·1절 제104주년을 앞두고 23일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선생을 위문했다.

이날 방문은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광복회전라북도지부(지부장 이강안)와 함께 진행했으며, 생존 애국지사에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현재 이석규 애국지사는 2022년 4월에 개원한 전주보훈요양원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120명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

하고 있다. 이석규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서회를 조직해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 독립활동을 하다가 고문을 치렀으며, 지난 2010년 대통령 표창을 서훈 받았다.

이승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할당할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제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토론에 변천 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동반원의 원외회장
- 전북의제교육원 및 기원, 단국 특강교수
- KBS TV야심마당, MBC TV, JT, TBS 90분 밤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시장
- 서식 '365스피치이슈투데이' "나쁜 세우, 빌, 빌" "스피치 10화" 등
- 스피치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낭송지도사 등 각종 소수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도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